

광주비엔날레, 5·18 40주년 다국적 프로젝트 'MaytoDay' 광주 전시



(재)광주비엔날레가 주최하는 5·18 40주년 기념 다국적 프로젝트로 추진한 'MaytoDay' (메이투데이) 광주 전시가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선재아트센터 전시 모습.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0월호

예향



통권 300호 기획...명사·예술인 목소리 담아
광주 히로애락 총장으로 이야기 '총장으로 오디세이'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월간 '예향'이 10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았다. 지난 1984년 9월 15일 창간호를 펴낸 이후 25년(휴간 11년 제외)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바탕은 독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예향 300호에는 수많은 사회명사와 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다. '예향 통권 300호 기념 기획'을 통해 그동안 다뤄온 예술가 인터뷰, 특집 콘텐츠, 잡지의 얼굴인 표지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300호 표지는 복간 이후 다양한 국내외 문화현장과 예술작품으로 꾸민 '예향'의 주요 표지 이미지를 담았다.

특집 '2020 총장 오디세이'는 광주의 히로애락과 함께 해온 총장 이야기로 담았다. '호남상권 1번지'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총장로는 호남의 역사이자 광주시민의 자랑이기도 하다. 최근 '총장 오래된 가게'가 발간되면서 총장로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총장로의 어제와 오늘, 총장로를 지켜온 사람들, 전국구 브랜드가 된 '7080 총장 축제'까지 총장로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이은주 사진작가를 만나고 왔다. 40여 년간 무용과 음악 공연 무대를 비롯해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등 예술가들의 초상을 카메라에 담은 이은주 작가. 할나의 모습을 포착한 그의 사진은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가 됐다. 최근 아르코예술기록원에 필름자료를 기증한 작가의 사진인생에 대해 들었다.

가을과 함께하는 화제의 전시 2제를 소개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존 5·18 전시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시도와 짜임새 있는 구성이 국내 미술계로 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시되는 '별이 된 사람들'의 주요 작품들을 통해 5월 정신의 유산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조명해본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사진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는 유물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24선을 6명의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들이다. 활영이라는 빛의 매개가 불러낸 옛것의 존재들은 무한한 상상과 깊이를 준다. '짜뚜목 남도 한 바퀴'는 땅끝의 매력 속으로 해남 가을여행을 떠난다. 가을의 빛깔을 한껏 머금은 '땅끝 마을'해남. 여느 때 같으면 여행객들로 넘쳐났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해남을 대표하는 두륜산과 달마산, 대흥사와 미황사, 힐링 도보길로 떠오르고 있는 '달마고도'까지 비대면 여행으로 안내한다. '해남미소'가 보증하는 건강 바나나와 해남고구마의 맛도 해남여행의 즐거움이다.

'문화는 품은 건축물'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의 대표 미술관인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다. 도심속 힐링 명소 설봉공원 안에 들어선 미술관은 공평이라는 자연적 임지를 고려해 건물과 자연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콘셉트로 설계됐다. 또한 월전 장우성 화백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공간답게 원형의 광장을 통해 수면에 비친 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외에 '호랑이 군단' KIA타이거즈 선택을 받은 광주일고 에이스 이이리 선수와의 재미있는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서울·대만·부에노스아이레스·퀵른 전시 한눈에

광주정신 동시대성 탐색... 10월 14일~11월 29일 ACC·옛 국군병원 등
사전 예매 관람·온라인 전시도...호 추 니엔 등 GB커미션 작품 소개

올해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월 정신을 모태로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정신의 동시대성을 탐색하기 위해 내년까지 다국적 프로젝트 'MaytoDay' (메이투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전시 일정이 어긋나기도 했지만 'MaytoDay'는 올해 대만 타이베이(5월 1일 ~ 7월 5일)를 시작으로 6월 서울(6월 3일 ~ 7월 5일), 7월 독일 퀵른(7월 3일 ~ 9월 27일)에서 순차적으로 관람객들을 만났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시는 코로나 19로 내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 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퀵른의 전시들을 한데 모아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축적된 광주정신의 다양한 시선을 만나는 광주 전시가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창조원 5관, 민주평화기념관 3관)과 201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도 활용했던 옛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각 전시의 주제들인 '민주주의의 봄' (서울), '오월 공-감: 민주중적중류' (대만), '광주 레슨' (퀵른), '미래의 신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한 자리에 만나는 기회로 'MaytoDay'의 기획의도였던 민주주의 정신의 동시대성을 조망해 보는 자리다. 또 서울에서 선보였던 대규모 목판화 전시는 보다 확장된 규모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항쟁을 증언했고, 현재는 운동의 기억들을 매개하는 역할로서의 목판화 작품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광주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2018년 시작된 기획으로 세계적인 작가들의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 예술, 시민정신과 관련된 가치를 예술작품을 선보였던 GB커미션이다. 올해는 기존 작품들이 확장된 형태로 소개되며 신작도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이번 전시 후 내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탁기·밥솥...사물과 결합된 산수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 10월 7일까지 전경연 개인전

화폭 속 압력밥솥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밥솥 안에 산(山)이 보인다. 주적으로 퍼서 밥그릇에 소복히 담아 놓은 것 역시 밥 대신 푸른 산이다. 육실 풍경은 또 어떤가. 육조와 세면대에 자리잡고 있는 다채로운 모습의 산과 소나무, 호수다. 누군가에게 전해질 꽃대밭 속에도 화사한 꽃 대신 산수가 담겼다. 한국화가 전경연 작가 개인전이 오는 10월 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개인전이다. 전시 주제는 '너머-결합된 산수(Combined Landscape)'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작품 속에 꼭 등장하는 건 산수다. 대신 마땅히 있어야 할 자연 속이 아

닌, 그 '너머'의 어딘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물과 함께 자리하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 낸다. 전 작가는 집안의 모든 사물을 산수화와 연관지어 생각하곤 한다. 야채, 과일을 갈아내는 믹서기, 세탁기 등이 모두 본래의 쓰임새 대신 산수화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낸다. 작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물들, 혹은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소소한 물건들의 존재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생활 전반의 모든 이미지들을 산수와 결합해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전 작가는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구수한 산수'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logos for various countries and awar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centers in Seoul and Suwon.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jeon Primo Men's and Women's Wigs) featuring portraits of staff members, product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a store in Gwangju.